

#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 수상한 주식거래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인 상황에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양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금호타이어의 주가는 전날 3550원에서 상한선인 30%까지 치솟아 1065원이 오른 4615원에 마감됐다.

이날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날로 부도와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다.

금호타이어 노조와 사측, 채권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에 걸친

## 해외매각 수용 결정 전 주가 상한가 기록 주식 거래량 광주 274% · 전남 508% 급증 회사 안팎에서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협상 끝에 오후 9시 무렵 해외매각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증권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 등으로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타결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오진 개장 10분 만에 주가가 치솟기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금호타이어 주식 거래량이 급증했다.

광주지역 매수거래량은 29일 63만8103주보다 111만5703주(274.8%) 증가한 175만3806주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29일 8만7964주에서 35만9117주(508.2%) 늘어난 44만7081주가 매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30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삼수 노조 대표지휘장이 파업을 철회하고 해외매각 수용 여부를 조율한 전방 투표로 결정하기로 처음 발표해 회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럼에도 오전부터 주가가 치솟으며 매수량이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양태라는 지적이다.

금호타이어 내부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주식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30일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식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양태로 미공개 내부 정보가 새 나간 것일 수도 있다"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팀이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포착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심층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 美서 세 딸 차에 태워 불 지른 엄마 체포

미국에서 세 딸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자녀들을 차에 태운 채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미 휴스턴 경찰당국은 세 명의 딸들과 함께 차에 있을 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애나 세고비나(31)를 체포했다고 CBS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세고비나는 22일 오후 세차장에서 9살, 11살, 13살인 세 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엔진에 불이 붙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앞 범퍼에 화재가 났다.

이를 지켜본 목격자들은 세 딸들을 차에서 구해냈다. 세고비나는 한 때 목격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러 갈거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고비나가 11살, 13살 딸 두 명은 버리고 9살 딸만 데리고 인근 강 근처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세고비나는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경찰관에 의해 구금됐으며 가족에 대한 '기중 폭행죄'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세고비나의 딸들은 친척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 캐나다 토론토 차량공격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23일(현지시간) 오후 캐나다 토론토 북부 외곽지역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도심에서 29km 떨어진 곳으로, 토론토에서는 주요7개국(G7) 외부 장관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CNN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손더스 토론토 경찰서장은 "흰색 밴 한 대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사고 후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며 "부상자는 15명으로 각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 경찰은 이번 사고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손더스 서장은 "용의자는 승합차 운전자인 25세 남성 알렉 미나시안으로 현장에서 도망가려 했으나 곧 체포됐다"며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온타리오 주 리치몬드 힐 출신으로, 범행에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용의자가 고의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손더스 서장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편지에서 북쪽으로 출발하는 차량이었으나 갑자기 남쪽으로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했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것이 분명해"라고 설명했다.

## 美 소녀, 수영장 물 마시고 흡인성 폐렴 걸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4살 짜리 어린 소녀가 수영장 물을 마신 뒤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미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에 사는 4살 엘리야나 그레이스가 지난 14일 수영장 물을 마신 뒤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폭스뉴스와 ABC뉴스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와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엘리야나의 사연은 엄마 레이시 그레이스의 동료들이 치료비를 돕기 위해 온라인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알려졌다.

엘리야나는 14일 할머니의 수영장에서 물에 떠 있는 속이 빈 고무발포 튜브인 '폴 누들'을 갖고 물을 빨아 올리는 게임을 하던 중 그만 수영장 물을 삼켜버렸다.

이이는 목구멍에 물이 들어가자 재빨리 토했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30분 후 다시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뒤 엘리야나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그레이시는 처음에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걱정이 되어 며칠 뒤 새러소타 메모리얼병원으로 딸을 데리고 갔다.

엘리야나가 검진을 받는 동안 심장 박동수는 갑자기 빨라졌고, 산소 수치는 떨어졌으며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했다.

의사는 그레이스에게 "딸을 가능한 한 빨리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옮기라"고 말했다. 엄마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엘리야나는 구급차를 타고 새러소타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는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산소호흡기를 이용해 숨을 쉬고 24시간 치료를 받았다.

엘리야나는 입원한 지 나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과학 · 영재고 경쟁률 14.43대1...전년비 상승

올해 과학고와 영재고(과학영재학교 ·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8개교의 평균 입학 경쟁률은 14.43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8개교가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789명 모집 정원에 1만138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4.43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4.01대 1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광주과학고는 정원내 90명 모집에 816명이 지원해 전년(7.41대1)보다 상승한 9.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정원내 84명 모집에 1806명이 지원해 21.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18.92대 1)보다 상승한 것으로 현재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학교중 가장 높다.

올해 과학고 및 영재고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중3 학생 수가 전년보다 약 1만명 정도 반짝 증가한 데다 과학영재학교 · 과학예술영재학교 전형은 과학고 등 전기고, 자사고, 외고, 일반고 등 후기고 전형 이전에 실시하고 전국 단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종로학원하늘교육은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재고가 후기고인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과를 지원하는 고교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란 유채꽃과 나비 24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경관단지에서 작은 주홍부전나비가 노란 유채꽃에 앉아 봄비를 즐기고 있다.

## 공공기관 554곳, 장애인생상품 구매비율 '1%' 못 미쳐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해 사들인 물건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곳 중 55곳은 법에서 정한 비율 1%도 못 채웠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5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매실적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1%로 2015년(1.02%)부터 3년 연속 법정목표를 달성했으나 전년(1.13%)보다는 0.12%p 감소했다.

1009개 기관 중 54.9%에 달하는 554곳이 법으로 정한 우선구매비율 1%를 넘기지 못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기관 집계에 포함된 지방의료원 29곳은 1788억원 가운데 6억원(0.33%)만 중

증장애인생산품에 투입해 법적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가장 많은 11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청(29억원)과 지방자치단체(3억원)도 구매를 늘렸지만 공기업 등은 78억원 예산 집행을 줄였다.

올해 우선구매비율과 전년 대비 증가율을 더해 점수를 매긴 결과(100점 만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올해 구매비율 상위 5개 기관) 등 41개 기관이 100점을 받았다.

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26억4258만원을 상품 구매에 쓰면서 단 한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구매비율이 0%를 기록하면서 0점을 받았다. 대검찰청(16.20

점)과 소방청(18.38점), 통일부(31.49점), 국무조정실(31.77점) 등도 하위 5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약 410억원(구매율 2.09%)을 기록했다.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구매액(1666억원)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예산 중 우선구매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이었다. 총 구매액 대비 28.3%인 7990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사는데 사용했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구매비율 목표를 1.17%로 높이는 한편 구매금액도 지난해보다 811억원 늘어난 6198억원으로 확정했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장애인지원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조사(발달, 자폐)치료, 영민 민력어